



중도입국 청소년의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배상률 부연구위원, drbai@nypi.re.kr

요약¹⁾

- 타국에서 언어와 사회화 과정을 일정기간 거치고 청소년기/학령기에 부모를 따라 한국에 온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상당수는 정체성의 혼란, 새로 형성된 가족관계에서의 갈등, 언어장벽, 경제적 어려움, 문화차이로 인한 심리적 불안, 사회적 차별 등의 갈등과 난관을 경험하게 됨.
- 중도입국 청소년들 상당수는 공교육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진로 및 진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니트족(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이 같은 현상의 심화는 중도입국 청소년 당사자의 개인적 불행은 넘어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됨.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가진 고유의 잠재력과 역량을 개발하고, 유용한 인적자원으로 성장토록 지원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 진로, 사회적 인식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중도입국 청소년들로 구성된 SNS 토론단을 운영하였음. 또한 중국, 베트남, 몽골 출신 중도입국 청소년 6명과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별도로 진행하여 이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정책은 무엇인지 파악하였음.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현장 전문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정책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파악하였음.
- 이 같은 과정을 거쳐, 교육바우처 제도, 중도입국 청소년 특별전형 신설, 중도입국 청소년 교육 시설 확충 및 커리큘럼과 교재 개발, 한국어 교육 지원제도 개선, 소셜러닝 지원, 한국폴리텍 다문화학교 모델 전국적 확대,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대상 확대, 중도입국 청소년을 포함한 다문화 관련 정책적 조율과 부처 간 유기적 지원시스템 마련을 위한 중앙컨트롤 타워 및 허브 구축, 다문화가정 학부모 진로코치 제도 도입, 위탁형 다문화 대안학교 확대 운영 등에 대한 정책제언을 하였음.

1) 본고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년 고유과제 '중도입국 청소년의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를 발책·요약한 것임.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세계화(globalization)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국경을 넘는 이주(migration)가 빈번해짐에 따라 우리 사회도 다문화사회로 들어서게 되었음.
- ▶ 다문화현상은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사회에 명(bright side)과 암(dark side)을 함께 가져왔음. 비교적 짧은 시기에 다문화사회로 급격히 접어든 우리 사회는 이전에 미처 경험하지 못한 갈등과 사회문제를 접하게 되었음.
- ▶ 중도입국 청소년들 중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한 결혼 이민자의 자녀로 모국에서 살다 부모를 따라 한국에 들어와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음. 이들은 언어 장벽, 문화차이, 가정환경 등에 있어서 여타 다문화배경 청소년들과 견주어 성장과 자립 여건이 척박하며, 사회적 관심과 정책지원이 절실함. 특히 이들 중 상당수는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령기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단순 노무직으로 취업하거나, 니트(NEET)쪽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함.
- ▶ 본 연구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가진 고유의 잠재력과 역량을 개발하고, 유용한 인적자원으로 성장토록 지원할 수 있는 추진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토록 하는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음. 이는 궁극적으로 21세기 세계화 시대를 주도할 인재 양성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임. 이를 위해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학, 진로, 사회자본 강화 등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량을 개발토록하고 세계시민으로서 당당히 설 수 있는 인적 자원으로 성장토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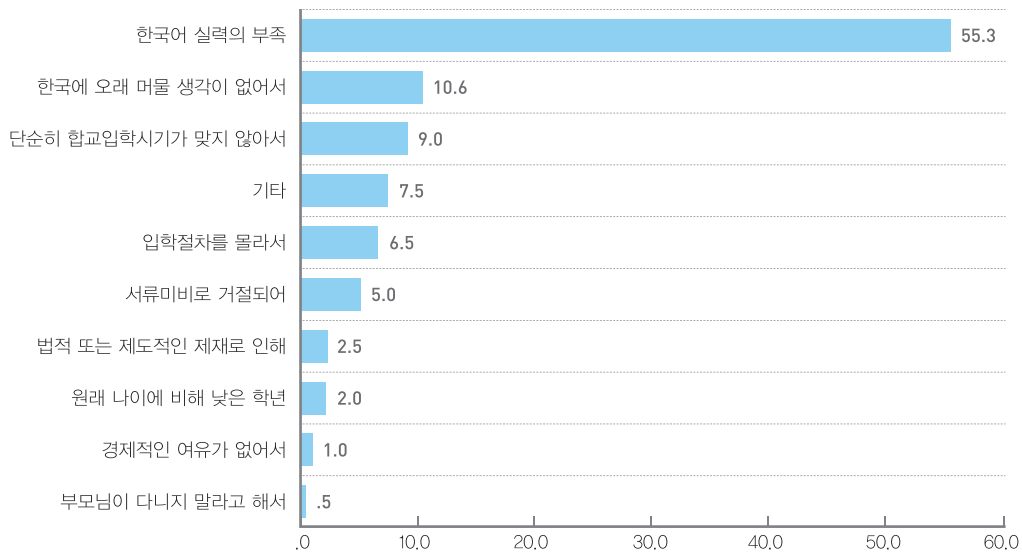
▶ 중도입국 청소년 설문조사 결과

- 최근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이슈는 '진로문제(54.5%)'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돈 문제(채무, 가난 등)'가 23.4%, '목표의식이나 꿈의 부재'가 20.9%로 나타남.

[표 1] 가장 큰 개인적인 고민 Top3 (1+2순위)

내용	응답률
진로문제(취직, 이직, 진학, 군대 등)	54.5%
돈 문제(채무, 가난 등)	23.4%
목표의식이나 꿈의 부재	20.9%

- 조사 응답자 중 재학생의 27.4%는 한국 입국 후 한국에서의 공교육 입학 소요기간이 1년 이상이라 응답함. 2년 이상이라 응답한 비율도 재학생 10명중 한명 꼴임(10.6%). 이처럼 공교육 진입과정이 지체되는 주된 이유로 '한국어 실력의 부족(55.3%)'을 들었음.



[그림 1] 3개월 이상 입학이 지체된 이유(재학생 수=199)

- 조사 응답자 중 비재학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 주된 이유는 '한국어 실력의 부족'(24.6%). 즉, 한국어 실력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공교육 진입과정에 주된 요인이라 할 수 있음.

[표 2] 비재학생 대상 현재 공교육 기관에 다니지 않는 이유 Top 5

내용		응답률
1순위	한국어 실력이 충분하지 못해서	24.6%
2순위	수업내용을 따라가기 어려워서	9.3%
3순위	비자 문제로 인해	5.8%
4순위	내 특기나 소질을 살리려고	4.9%
5순위	학교에 가고 싶었으나 입학절차를 몰라서	4.6%

주) 다중응답으로 처리하여 N값이 일치하지 않음(N=431)

-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및 정책지원 순위에 있어서 '수준별 한국어 교육'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함.

[표 3]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및 정책지원(1순위+2순위)

내용	응답률
수준별 한국어 교육	24.9%
직업기술훈련	11.8%
학교수업/교과목 지도	11.7%
취미활동 지원	10.1%
진로 및 적성탐색 프로그램	9.9%
한국사회 및 문화적응 프로그램	7.8%
재정지원 정책	7.3%
1:1 멘토링 프로그램	6.4%
주거지원정책	3.8%
별로 필요하지 않다	3.5%
상담프로그램	2.0%
기타	1.0%

주) 다중응답처리로 인해 N수가 일치하지 않음(n=1,054)

-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한국 입국 전 부모님과 별거기간이 2년 이상이라고 응답함. 특히 5명 중 2명꼴로(41.8%) 한국 입국 전 부모님과 3년 이상 떨어져 지냈다고 응답하였음. 한국에서의 낯선 환경, 새로운 가정의 적응문제뿐만 아니라 오랜 별거기간에 따른 소원해진 부모와의 관계 등에 따른 고충이 예상됨.

[표 4] 부모님과 한국 입국 전 별거기간

내용	응답률
전체	100%
없다	23.9%
6개월 미만	5.9%
6개월 이상 1년 미만	5.2%
1년 이상 2년 미만	8.5%
2년 이상 3년 미만	7.6%
3년 이상	41.8%
무응답	7.1%

- 1(매우불만족)~10(매우만족)까지의 Likert 척도로 입국 전 고국에서의 삶과 현재 한국에서의 삶의 만족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에서의 삶의 만족도가 소폭으로 감소하였음. 17세 이하의 남성이 한국에서의 삶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5] 한국 입국 전/후 삶의 만족도 비교

		입국 전 고국에서의 삶의 만족도	한국에서의 삶의 만족도
전체		6.94(2.14)	6.89(1.79)
성별	남자	7.01(2.18)	6.92(1.81)
	여자	6.82(2.07)	6.86(1.77)
연령	17세 이하	7.23(1.98)	6.94(1.70)
	18세 이상	6.84(2.20)	6.92(1.86)

- 지난 6개월 동안 문화 차이, 언어 장벽, 외모 차이 등 외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차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묻은 질문에 응답자의 5명중 2명꼴로(39%) 그렇다고 응답하였음. 차별을 받았을 때의 대응방법으로 ‘그냥 참는다’가 58.9%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부모님과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알린다’(17.9%), ‘친구/선생님 등 주위사람에게 알린다’(9.1%)가 그 뒤를 이었음.



[그림2] 한국에서 차별 받은 경험 여부

-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교사의 지지, 어머니와의 긍정적인 관계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들 세 개의 변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됨. 진로정체감 지수는 ① 장래에 내가 꼭 하고 싶은 직업분야가 있다, ② 장래에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해 방향을 정했다, ③ 나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소신대로 직업을 결정해야한다, ④ 현재 어떤 직업분야를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분명하다 등의 문항을 통해 파악하였음. 중도입국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아버지와의 긍정적인 관계, 어머니와의 긍정적인 관계, 또래애착, 한국어 수준 순으로 조사됨. 이들 4개의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음.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로정체감과 자아존중감에 한국거주기간, 경제적 수준, 입국 동기(비자발 또는 자발적 입국)는 사실상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표 6]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요인

구분		모형1(진로정체감)			모형2(자아존중감)		
		B	S.E	베타(β)	B	S.E	베타(β)
(상수항)		.845	.403		1.264	.313	
통제 변인	성별	.160	.074	.105*	.040	.057	.033
	연령	.085	.059	.069	.100	.046	.101*
	한국 거주기간	-.007	.041	-.009	-.012	.032	-.019
	경제적 수준	-.015	.073	-.009	-.029	.057	-.023
	한국어 수준	.039	.050	.039	.086	.039	.105*
	입국 동기	.052	.082	.031	.072	.064	.054
	한국에 대한 긍정적 태도	.212	.064	.180**	.029	.049	.030
독립 변인	아버지와의 긍정적인관계	.010	.056	.013	.171	.044	.258***
	어머니와의 긍정적인관계	.129	.063	.140*	.115	.049	.155*
	교사지지	.163	.050	.179**	-.007	.039	-.010
	도래애착	.023	.056	.022	.124	.043	.148***
R ²		.186			.254		
Adjusted R ²		.163			.232		
F		7.99***			11.83***		

주) 성별: 0=남, 1=여.

연령: 1=9세이상 12세미만, 2=12세이상 15세미만, 3=15세이상 18세미만, 4=18세이상.

한국거주기간: 1=1년미만, 2=1년이상 3년미만, 3=3년이상 5년미만, 4=5년이상

한국어수준(전반적인 평가): 1=전혀못한다, 2=못한다, 3=보통이다, 4=잘한다, 5=매우잘한다

입국동기: 비자발적입국=0, 자발적입국=1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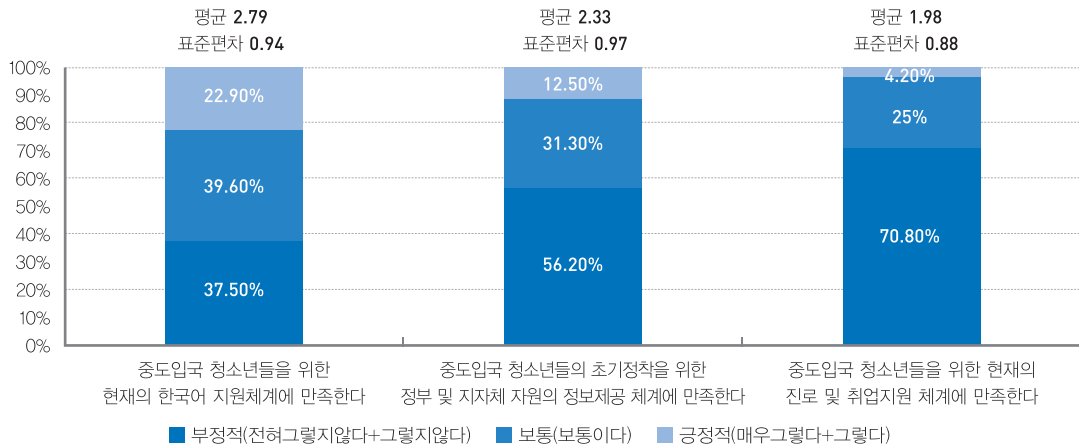
-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매체이용 시간이 높게 나타남. 온라인게임 하루 평균 이용시간 및 스마트폰 하루 평균 이용시간이 각 2시간 30분, 4시간 20분(중위값 기준)으로 나타났음. 온라인게임과 스마트폰 하루 평균 이용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각각 49.6%, 74.3%를 차지하였음.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과몰입 예방 및 치유를 위한 정책방안이 시급함.

[표 7] 매체별 하루 평균(중위수) 이용 시간

매체별 평균(중위수) 이용시간							
온라인 게임(PC, 스마트폰)	TV프로 그램/영상 (한국어)	TV프로그램/ 영상 (비한국어)	스마트폰 이용	SNS이용 (한국어)	SNS이용 (비한국어)	서적/신문/ 인쇄물 (한국어)	서적/신문/ 인쇄물 (비한국어)
2시간 30분	1시간	1시간 30분	4시간 20분	2시간	2시간	1시간	1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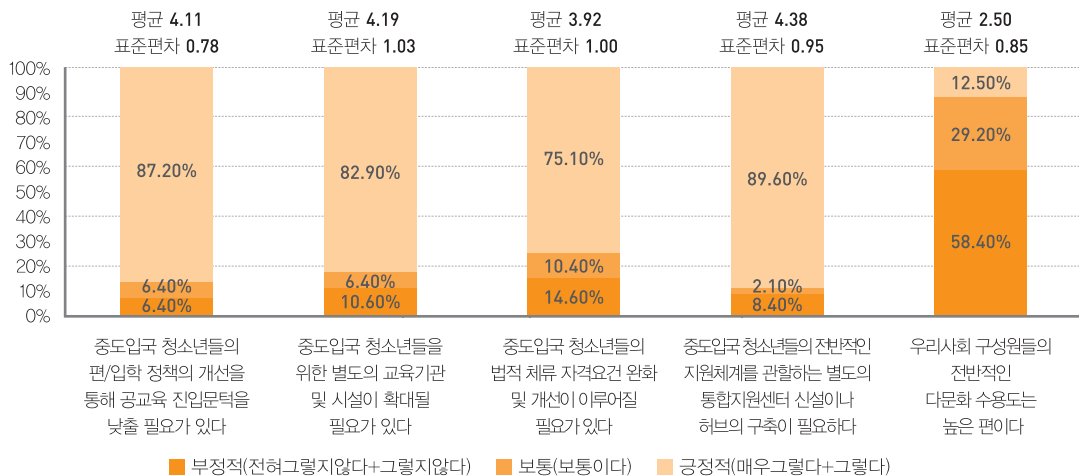
▶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 현장 전문가들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 및 취업지원 체계에 대해 가장 낮은 만족도(평균 1.98점)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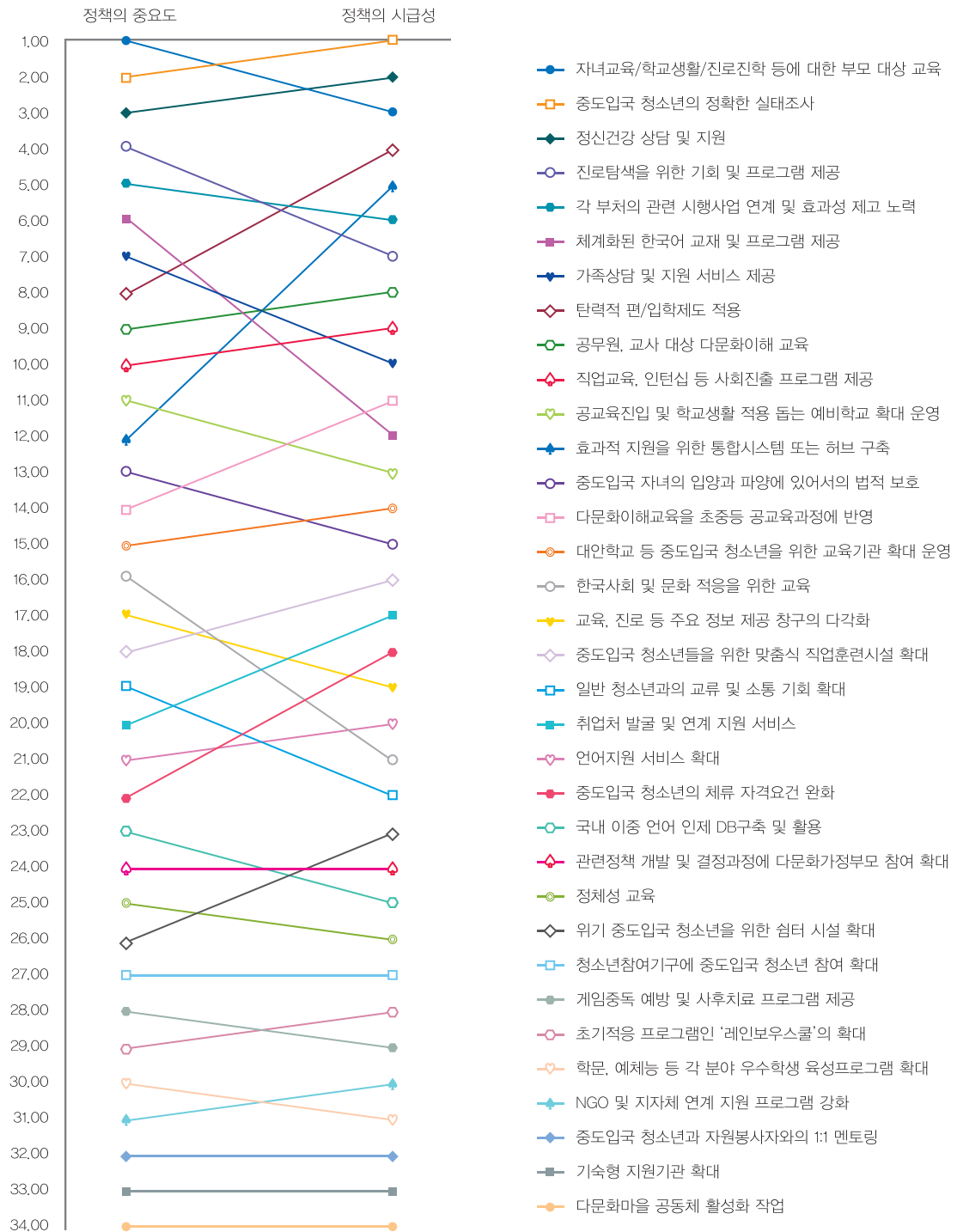
[그림 3]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체계에 관한 만족도

-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관할하는 별도의 통합지원센터 신설이나 허브구축 필요성(평균 4.38점)’이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냈고, 다음으로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기관 및 시설확대의 필요성(평균 4.19점)’을 손꼽음.



[그림 4]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정책필요성에 관한 의견

- 현장 전문가들이 꼽은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정책의 중요도 및 시급성이 높은 주요 정책 세 가지는 자녀교육/학교생활/진로진학 등에 대한 부모 대상교육, 중도입국 청소년의 정확한 실태조사, 정신상담 및 지원임.



[그림 5]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정책의 중요도 및 시급성 순위(전체)

▶ 심층분석 결과

- 자발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청소년의 경우 비자발적으로 입국한 청소년보다 내적자산(진로정체감,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이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
- 한국문화 및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높을수록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내적자산(진로정체감,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임.
- 특히 중도입국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는 이들의 내적자산(진로정체감,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교사의 지지를 많이 받거나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진로정체감은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님과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남.

3. 정책제언

▶ 교육 바우처 제도 시행

- 자녀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부모들도 한국어 능력의 부족으로 자녀교육과 교육정보 취득에 대한 한계를 갖고 있으며, 경제적 이유로 맞벌이 가정이 많아 자녀교육의 여유가 없는 경우도 많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바우처(voucher) 제도를 시행하여 일정한 수준의 사교육비를 지원토록 함. 특화된 사교육 시장에서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언어별, 문화별, 수준별 지도가 가능하며 교과목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와 교육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함.
- 학령기의 중도입국 청소년 가정에 직접 발급하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방식으로 자금의 관리적인 면과 교육소비자의 선택권 강화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중도입국 청소년 재학률 및 진학/취업률에 따른 학교 대상 인센티브 지급

- 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이나 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등 현재 교육부의 학교발전 전략의 하나로 시행되는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다문화가정이란 테두리에 중도입국 청소년을 포함시키는 것이 아닌 중도입국 청소년을 별도로 분류하여 이들의 재학률, 진학/취업률을 반영하여 학교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함.
- 학교 측은 교육부나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인력을 추가배치하고 시설을 확충할 수 있고,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공교육 진입이 보다 수월해질 수 있으며, 특화된 교육환경에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음.

▶ 중도입국 청소년 특별전형 신설

- 현재는 중등과정과 고등과정의 특별전형에 있어 다문화가정 자녀의 테두리 속에 중도입국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으나,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일반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과는 다른 성격의 집단으로 규정되어야 함.
-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재양성의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공교육 진입 유도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다문화 감수성 및 세계시민교육을 주제로 한 교원양성 과정 및 연수프로그램 시행

- 교사 연수 시 다문화감수성 및 세계시민교육을 주제로 한 커리큘럼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마찬가지로 중도입국 청소년을 포함한 다문화배경 청소년들을 담당하거나 지도하는 교사들을 위하여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별도의 연수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보통 교사 연수에서 이뤄지는 강의식 연수보다는 스토리텔링 방식과 참여자 중심의 커리큘럼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교사들의 다문화 배경 청소년들의 이해를 돕고 인식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일 것임.

▶ 공교육 진입 제도의 간소화 및 대체 방안 마련

- 증빙서류의 미비로 공교육에 진입하지 못하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없도록 증빙서류의 간소화나 대체 방안이 요구됨. 경기도 교육청이 현재 실시중인 「다문화예비학교」는 공교육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공교육 진입의 대체 방안으로 관심이 높음. 현재 경기도 교육청이 29개 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다문화예비학교의 확대를 통해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공교육 진입을 제고에 힘써야 함.

- 이를 통해 중도입국 청소년의 공교육 진입에 어려움이 해소되어 공교육 진입이 수월해질 수 있음.

▶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시설 확충과 교재 및 커리큘럼 개선

- 한국어 수준이 낮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해 예비학교나 예비학급 개설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경기도가 실시하는 다문화예비학교의 취지와 장점을 살려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보다 내실 있는 운영과 교육 효과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와 보완이 시급함. 문화적 배경과 언어가 다양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40시간의 한국어 교육으로는 성공적인 공교육 진입과 학업 수행이 사실상 어려움. 한국어 수준을 고려하는 동시에 중등과정 연령에 상응하는 콘텐츠를 담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교재의 개발이 필요함. 또한 한국어 교사들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워크북(workbook)을 교육부나 교육청 차원에서 제작하여 일선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교재 및 워크북은 관련 교육전문가들과 일선 교사들이 참여하여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 한국어 수준 및 연령에 상응하는 콘텐츠로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음.

▶ 모국어로 번역된 학교운영 및 교육제도 매뉴얼 보급 및 학교통신문 번역 앱 개발

- 학교 통신문과 교육관련 주요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학교로부터 받아볼 수 있는 클래스팅(classting)과 같은 앱에 한국어를 다양한 외국어로 번역할 수 있는 기능의 적용이 필요함.

- 이를 통해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중도입국 청소년 자녀의 학부모와의 원활소통의 어려움을 해결 할 수 있고,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여 불이익을 받았던 중도입국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음.

▶ 1+3 제도의 운영

- 중등과정 정규교육제도 최초 진입 이전에 디딤돌 학교나 예비학교 등을 전국적으로 마련하여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집중 교육이 무상으로 약 일 년 간 실시될 필요 있음. 한국어 교육과 함께 한국 문화와 교육제도를 파악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전문 교사 인력을 확충한 후 이수시간을 하루에 최소 다섯 시간 이상 배정하여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특히 「1+3제도」하에서 첫 해는 중도입국 청소년이 일반 한국학생들과 함께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시기로 한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도입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서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으로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음.

▶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주말교실, 맞춤형 교육, 온라인 강좌 개설)

- 주말에도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령과 대상을 고려한 한국어 수업이 이루어질 필요 있음. 모국출신 강사나 모국어 자막이 들어간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 동영상 개발하여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공교육 과정에 이미 진입한 중도입국 청소년들도 주말을 이용해 한국어 학습을 보충할 수 있으며, 연령과 대상에 맞춤형 한국어 수업을 통해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음. 또한 온라인 강좌 개설 등을 통하여 시·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한국어 수업이 가능해짐.

▶ 소셜러닝(social learning) 개념을 적용한 스마트폰 앱 개발

- 본 보고서 설문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대부분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으며 하루평균 이용시간도 4시간이 넘을 만큼 스마트폰 친화적인 생활을 하고 있음. 소셜미디어의 장점을 살린 소셜러닝 개념을 도입한 별도의 스마트폰 앱을 만들어 일반적으로 한국어 강좌를 듣는 방식에서 벗어나 질의응답 형태로 교수자와의 소통이 이루어지며 이용자인 중도입국 청소년들 간에도 실시간으로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교육적 효과성이 제고될 것임.
- 이를 통해 중도입국 청소년을 포함한 다문화배경의 이용자로 하여금 타인과의 소통을 통한 교감으로 흥미성과 학습동기를 유발하는 동시에 집단지성의 힘으로 한국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학습효과를 확보할 수 있음. 또한 언어별로 온라인 스터디그룹이 자연스럽게 조성될 수 있어 소통과 공감 능력이 배가될 수 있음.

▶ 다문화 취업 박람회 개최 및 중도입국 청소년 채용 기업 세금감면 혜택 부여

- 다문화 배경에 특화된 직업군 및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는 직종에 대한 파악과 취업처와 수요자간의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다문화 취업 박람회의 상설화가 필요함. 또한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외국출신이라는 이유로 취업에 제약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중도입국 청소년 채용 시 세금 감면 혜택과 같은 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진로 및 취업에 대한 동기를 강화시킬 수 있음.

▶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 모델 전국적 확대

- 전국에 산재한 다양한 기능대학에서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고등기술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폴리텍다솜고등학교와 같이 무상교육을 통해 각 분야의 전문기술을 익히고 자격증 취득을 하도록 하여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학교차원에서 기업들과 MOU를 맺거나 현장에서의 실무경험을 쌓도록 하고, 취업 후 졸업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도록 함. 전교생은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며 휴대폰 반입을 금지하는 등의 엄격한 규정에 따라 생활지도를 함.
- 비교적 어려운 가정형편과 가족구성원간의 갈등에 자주 노출되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정부의 지원을 통해 기숙형 학교에 입학한다면, 이들의 진로·진학지도와 생활지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교육복지 차원에도 도움이 될 것임.
- 또한 기능대학의 특성화 전략에 따라 학교마다 전공분야를 달리하고 다양한 업종의 전문 인력을 양산한다면 인력부족현상을 빚고 있는 산업계에 전문기술인력이 안정적으로 제공되는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대상 확대 운영

-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최장 1년 기간 내 단계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취업 촉진 및 빈곤탈출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를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음. 특히, 귀화가 완료된 중도입국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국적과 상관없이 한국에 체류한지 3년 이상인 18세 이상의 중도입국 청소년과 귀화시험에 합격하였으나 국적취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18세 이상의 청소년들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직업훈련과 구직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중도입국 청소년의 니트족화를 방지하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임.

▶ 중앙컨트를 타워 및 허브 구축

- 중앙 컨트를 타워의 역할을 하는 별도의 신설 센터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초기 정착부터 지역사회 정착까지 단계별·영역별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 후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중앙 컨트를 타워로서 신설 센터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이나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으로 두고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입법적·행정적 정책 시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권한을 주어야 함. 중앙 컨트를 타워의 또 다른 핵심기능으로 전국에 산재한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 기관 및 단체들의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긴밀한 공조체제를 갖춰나가야 함. 효과적인 공조체제의 구축력을 갖추기 위해 민간전문가들에게 신설 센터의 운영에 일정한 직책과 결정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 있음.
- 이를 통해 각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시행되는 정책 및 프로그램들을 통합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부처 간 상충되거나 중복되는 관련 정책들의 교동정리를 통한 예산절감 및 지원혜택을 받는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음.
- 또한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행정적·법적 정보 및 지원에 관한 원스톱 서비스(one-stop service)를 제공할 수 있고, 홈페이지와 앱을 통한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와 법적·행정적 정보 제공으로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음.

▶ 위탁형 다문화 대안학교 확대 운영

- 지역사회 내 대안교육 시스템의 확대차원에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위탁형 다문화 대안학교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음.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일반 학생들과 함께 어울려 교육을 받는 통합방식과 비슷한 다문화 배경의 청소년들을 별도의 공간에서 교육을 받게 하는 분리방식 중 중도입국 청소년이 학력수준 및 성향 등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하여 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함. 일반학교만으로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대안학교를 선별하여 위탁기관으로 선정하고 학제를 인정해줌으로써 학생들의 비자연장으로 인한 불안감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맞춤형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통해 중도입국 청소년이 다양한 학습권을 존중하고, 이를 실현함으로써 글로벌 시민으로 양성 할 수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비자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에서 해소시킬 수 있음.

▶ 다문화가정 학부모 진로코치 제도

- 현재 서울시 교육청은 「학부모진로코치 양성」을 모델링하여 「다문화가정 학부모 진로코치 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학교와 가정을 잇는 연결고리로서 학부모 진로코치의 존재감은 크기 때문임. 다문화배경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양성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이들을 진로코치로 양성해야함.
- 이를 통해 중도입국 청소년의 부모가 자신의 자녀와 청소년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으며 자녀의 진로고민에 대해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조언을 줄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됨.